

한국여성들의 고용상의 지위 근로조건은 대만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女性근로조건 "日 臺灣보다 열악"

노동부조사 임금뒤지고 보육시설등 母性보호대책 미흡

한국 일본 대만등 3개국 여성들중 한국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가장 부진하며 근로조건의 성차별도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한국 대만 일본의 여성고용실태 고용평등제도 여성특별보호비교」 조사에 따른 것.

이 조사를 보면 한국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3%로 일본보다 3.4% 낮고 대만보다 2.9% 높은등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취업자의 지위는 낮은 편이어서 한국의 경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피고용자 비율이 57.4%(일본 74%, 대만 72.2%)이며 일본 대만에 비해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의 비중이 낮고 판매 서비스직 농림어업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여성의 취업비율이 9.1%로 대만(16.2%)과 일본(25.6%)에 비해 현격하게 낮아 한국에서는 고학력일수록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 더크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비교할때 한국여성의 임금은 남자의 55.9%로 나타나 대만(67%) 일본(66%)에 비해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력 취업률-전문직 비중도 크게 낮아

한편 모성및 육아보호제도를 비교해보면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비슷한 기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 대만은 출산휴가중 임금지급을 기업이 부담하고 일본은 사회보험제도인 질병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보육, 주부들의 재취업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본에서는 남자도 육아휴직대상에 포함되며현재 보육대상의 83.4%를 충족하는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보육대상의 12%를 충족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또한 일본은 집안에서 위임, 도급형태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주부들의 계약 임금 건강보호를 위해 가내노동법을 제정, 시행중이며 기업에 고용자 재채용지원금을 주는 재고용제도를 도입해 주부들이 임신 출산 육아등의 이유로 퇴직했어도 다시 취업할 수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金喜曙)